



## 재외동포청, 베트남 등 다문화 가족 첫 초청 4개국 19가구 72명 - ‘동포 보듬기’ 사업 일환, 한국 발전상 체험하며 한인으로서 정체성 및 자긍심 함양

-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인이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다문화 가족이 한국 정부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2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, 캄보디아, 미얀마, 태국 4개국 19가구 72명을 초청했다.
- 이번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은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차세대 재외동포를 향해 약속한 ‘우수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’을 이행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청의 ‘동포 보듬기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.
- ‘다문화 가족 차세대 동포 초청 사업’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동남아시아 지역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,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체감하면서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와 함께 한국과의 유대감도 증진한다는 목표가 있다.
- 재외동포청은 다문화 가족 차세대 동포가 ‘미래 한-아세안 민간 외교관’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문화탐방,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대중문화(K-pop) 체험, 첨단제조 기업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.

○ 또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를 꽃피우고 계승해 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바로 알 수 있는 역사문화 강연, 유적지 탐방, 전통무용·무예 공연, 전통의복 체험 등도 준비했다.

○ 이기철 청장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‘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’을 강연한다. 유례가 없는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발전을 이뤄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려 다문화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정체성을 함양하고,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 2~3세들에게 우수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.

붙임 다문화 가족 차세대동포 초청행사 개요 끝.

담당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(032)585-3172
		담당자	사무관	이선호	(032)585-3174